

3(2)
-
241

회의문자①



壽

목숨 수

壽자는 '목숨'이나 '수명', '장수'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壽자는 士(선비 사)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선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壽자의 금문을 보면 발을 가리키고 있는 노인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발에 나와 이것저것을 참견하던 노인을 표현한 것이다. 壽자는 나이가 많은 노인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로 본래 의미는 '노령'이나 '노인'이었다. 그러나 후에 노인과 관련된 뜻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목숨'이나 '수명', '장수'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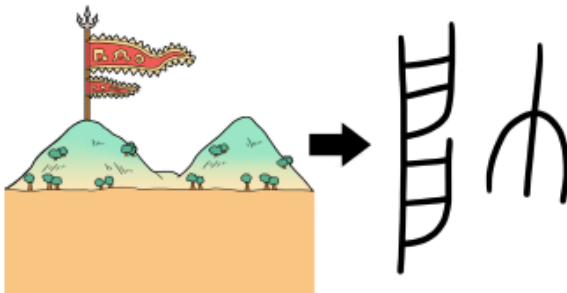
金文

小篆

해서

3(2)
-
242

회의문자①



帥

장수 수

帥자는 '장수'나 '거느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帥자는 '장수'라고 할 때는 '수'라 하고 '거느리다'라고 할 때는 '솔'로 발음한다. 帥자는 阜(언덕 부)자와 巾(수건 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巾자는 나무막대기에 걸쳐있는 천을 그린 것이다. 帥자는 이렇게 천이 걸린 모습을 그린 巾자에 阜자를 결합한 것으로 언덕 위에 깃발이 꽂혀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고대에는 부대마다 고유의 깃발이 있었고 병사들은 그 깃발을 따라 이동했다. 깃발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통솔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래서 帥자는 '거느리다'나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고, 후에 병사들을 이끄는 '장수'나 '우두머리'도 뜻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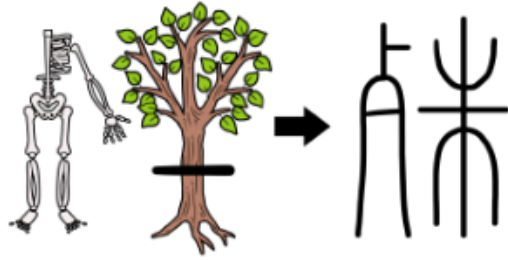
金文

小篆

해서

3(2)
-
243

회의문자①



殊

다를 수

殊자는 '다르다'나 '뛰어나다', '거의 죽다', '유달리'와 같이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殊자는 歹(뼈 알)자와 朱(붉을 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朱자는 속이 붉은 나무를 뜻하는 글자로 '붉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殊자는 본래 '참수(斬首)'나 '죽다', '끊어지다'라는 뜻을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래서 '붉다'라는 뜻의 朱자와 '죽음'을 의미하는 歹자를 결합해 피를 흘리며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뜻했었다. 그러나 후에 '거의 죽다'나 '다르다'라는 뜻이 파생되면서 지금은 '유달리'나 '특히'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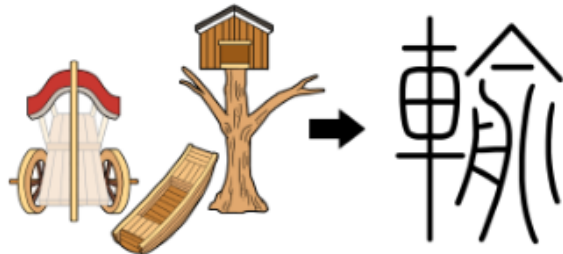
소전

殊

해서

3(2)
-
244

회의문자①



輸

보낼 수

輸자는 '보내다'나 '실어내다', '나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輸자는 車(수레 차)자와 俞(점점 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俞자는 '배'를 뜻하는 舟(배 주)자와 余(나 여)자를 함께 그린 것으로 본래는 '통나무배'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배는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이다. 그러니 배를 그린 俞자에 車자가 더해진 輸자는 수레로 물건을 '운반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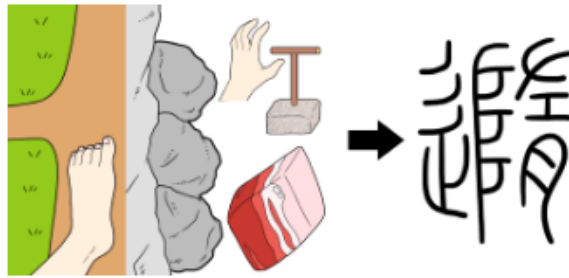
소전

輸

해서

3(2)
-
245

형성문자①



隨

따를 수

隨자는 '따르다'나 '추종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隨자는 총 16획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글자이다. 隨자는 辵(쉴:쉬엄쉬엄 갈 착)자자와 隋(수나라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隋자는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隨자에 쓰인 辵(쉴)자는 길과 사람의 다리를 함께 그린 것으로 '길을 가다'라는 뜻이 있다. 隨자는 이렇게 길을 가는 모습을 그린 辵(쉴)자를 응용해 누군가를 따르거나 추종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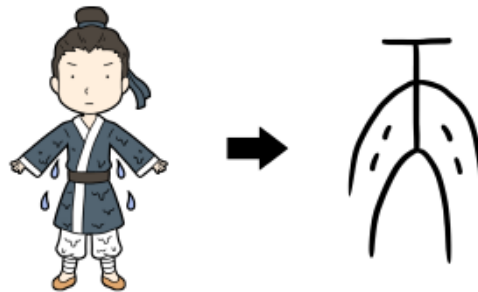
소전

隨

해서

3(2)
-
246

회의문자①



需

쓰임/쓸 수

需자는 '구하다', '필요로 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需자는 雨(비 우)자와 而(말 이을 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需자를 보면 사람의 겨드랑이 사이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𩇛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비를 흠뻑 맞은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需자는 본래 비를 맞는 사람을 그려 비를 피할 장소나 우산이 필요하다는 뜻을 표현했었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여기에 雨(비)자가 추가되었고 해서에서는 비를 맞는 사람을 而(말 이을 이)자로 표현하게 되면서 지금의 需(비)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需

갑골문

需

금문

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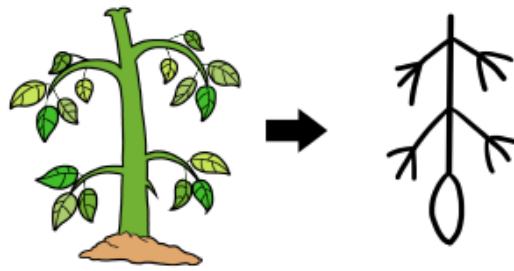
소전

需

해서

3(2)
-
247

상형문자①



垂

드리울
수

垂자는 '늘어뜨리다'나 '드리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垂자를 보면 식물의 가지와 잎이 늘어져 있는 𣎵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垂자는 식물의 잎이 늘어진 모습에서 '드리우다'나 '늘어뜨리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이다. 후에 垂자에는 '기울다'나 '쏟다', '베풀다'와 같은 뜻이 파생되었는데, 나뭇가지가 사방으로 늘어진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온 정을 베푸는 모습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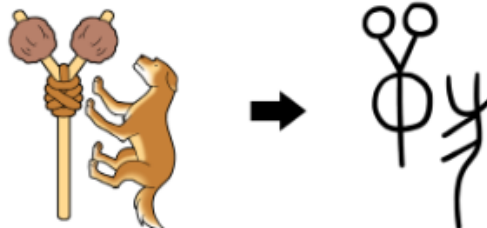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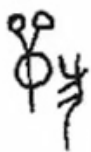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獸

짐승 수

獸자는 '짐승'이나 '가축'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獸자는 𠂔(짐승 수)자와 犬(개 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𠂔자는 사냥도구를 그린 것으로 '짐승'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나 獸자의 갑골문을 보면 單(홀 단)자와 犬자가 𠂔 그려져 있었다. 單자가 사냥도구의 일종을 그린 것이니 이것은 사냥도구로 짐승을 잡는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 獸자는 '수렵'이나 '사냥'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사냥의 대상이 된 동물을 일컫게 되면서 지금은 '짐승'이나 '가축'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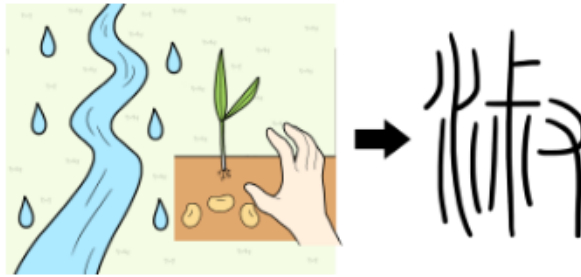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249

형성문자①



淑

맑을 속

淑자는 '맑다'나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淑자는 水(물 수)자와 叔(아재비 숙)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叔자는 콩고투리를 손으로 잡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淑자는 '맑다'라는 뜻을 위해 水자를 의미요소로 사용한 글자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맑다'나 '깨끗하다'라는 것은 물이 아닌 '사람의 성품'을 뜻한다.

淑

소전

淑

해서

3(2)
-
250

회의문자①



熟

익을 속

熟자는 '익다'나 '익히다', '여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熟자는 孰(누구 숙)자와 火(불 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熟자의 갑골문을 보면 사당 앞에서 제를 지내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고대에는 熟자가 익힌 제물을 바친다 하여 '익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羊(양 양)자가 더해지면서 익힌 제물을 바쳐 올린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하였다. 그러나 후에 熟자가 '누구'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여기에 火자를 더한 熟자가 '익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𠩺

갑골문

𠩺

금문

𠩺

소전

熟

해서